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한 산모의 진통 이였다면, 이스라엘의 건국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홀로코스트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에 집착하며 생존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 보다 더 번성하게 하 실 것이며,(신30:5)"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건국을 말하게 하셨다.

1799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을 위한 나라를 세우자는 제안을 한 바 있고, 같은 시대에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1797-1801 재임)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1837-1901 재위)도 같은 주장을 한바 있다. 유대인들 스스로 건국의지를 공식 적으로 드러낸 것은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차 시온주의 총회에서 였다. 이 총회를 주도했던 데오도르 헤르츨은 오스트리아 출생 유대인으로서 시오니즘을 반대했던 신문기자였다. 그런 그가 1894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드레퓌쉬 대위 간첩사건의 재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간첩혐의가 전혀 없는 드레퓌쉬 대위를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종신형에 처해지는 것에 충격을 받고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2년간 칩거하면서 "유대인의 국가(The Jewish State, 1896)라는 책을 저술하여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위한 국가건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1897년 시온주의 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시온주의 운동이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주의 정치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시온주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신앙의 표현이다. 따라서 비기독교인의 시온주의와 기독교인의 시온주의는 그 개념이 다르며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적인 시온주의를 분별 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바젤에서 개최된 시온주의 운동 주체는 반 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정치운동에 근거를 두고 건국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 신앙적인 유대인의 행태까지도 선으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으셨다. 비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건국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초를 세움으로써 복음을 받아 드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시온주의 총회에서 데오도르 헤르츨 은 '앞으로 50년 후에는 유대인의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건국 되었으니까 데오도르 헤르츨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 나 이 예언의 성취과정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고 계셨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을 통해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관활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으 로 하여금 "종전 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국가건설을 약속"하는 밸푸어 선언(1917년) 을 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졌던 건국의 꿈을 가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알 리야(이민) 물결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밸푸어 선언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셨다. 제1차 세계대전에 말려든 영국은 전쟁의 양상이 장기전으로 변화됨에 따라 군자금의 부족과 미국의 대 독일 참전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인이며 유대계 영국인인 시오니스트 총회장 로스차일드 경에게, 유대인들로 부터 군자금의 지원과 미국의 참전여론을 조성해 주는 대가로 종전 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국가건설을 약속할 것을 제안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미국의 은행과 금융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 매스컴도 상당 수 보유하고 있어 영국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 뿐만 아 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후세인- 맥마흔 협정이 영국정부의 제안을 받아 드리는 촉진제가 되었다. 영국은 제1차 대전에 말려들면서 영국의 중요한 식민지인 인도로 가는 통로를 오스만 제국(1281-1922)으로 부터 보호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맥마흔으로 하여금 메카의 영주인 칼리프 후세인에게, 오스만 제국과의 전 쟁에 아랍인들이 참전해 준다면 전후 아랍왕국의 독립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인들을 위 한 국가건설을 약속한다는 협약을 밸푸어 선언 2년 전인 1915년에 한바 있어, 유대인들로서 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건설에 대한 영국정부의 공식적인 약속이 절실히 필요 했다. 결국 영국은 국가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인과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 것을 이중으로 약속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밸푸어 선언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국가건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 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건국의 꿈을 안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알리야(이민) 하는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하였다.

밸푸어 선언 이전 팔레스타인 땅에는 수만 명에 불과했던 유대인들이 종전이후 수십만 명으로 그 수가 증가 하였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는 돈을 가지고 팔레스 타인인의 소유의 땅을 사서 농토로 개간하고, 산업시설을 일으켜 그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 가기 시작하자 현지 아랍인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아랍인들이 영국정부에 유대인의 이민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의를 제기함으로 인해 영국정부는 팔레스타인 땅으로의 유대인 이민을 금지시키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 같은 아랍인들의 압박이 가해지게 되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30만 유대 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1920년 하가나(유대인의 비밀 지하군대)를 조직하여 유대 인의 생존을 지키는 일에 집중 하면서 건국 작업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제1차 세 계대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 오던 유대인들의 알리야 물결도 소멸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셨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개전되었고, 독일의 히틀러는 호로코스트를 감행하여 600만 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참혹한 일을 저질렀다. 당시 유럽거주 유대인의 수가 900만으로 추산되었으니까 유럽 전체 유대인의 3분의 2가 학살되는 세기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지만 지구상에 어느 한 나라도 유대인의 인권유린에 대해 항의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가 없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국가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홀로코스트에 자극을 받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1940년 하가나의 장교들로 구성된 모사드 (Mossad Aliyah Beth:이민로 B 기관)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을 비밀리에 이민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 만들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에 이르러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50만에 이르렀다. 종전 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이주가 허용됨에 따라 모사드의 비밀활동은 멈추지 않고 전쟁무기 밀수입하는 활동으로 그 기능을 바꾸어 건국시 아랍인들과의 전쟁에 대비해 서 유대인들을 무장시키는 일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건국의지를 불태우면 서 철저하게 전쟁준비를 하는 한편 벤구리온을 주축으로 한 유대인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유엔을 통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국가건설을 승인받기 위한 외교교섭을 전개하였다. 반대로 아랍측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국가건설을 할 수 없도록 아랍세계의 모 든 힘을 결집하여 방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을 지지하는 나라는 석유공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에게 54%, 아랍인에게 46%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은 국제 관활 구역으로 할 것을 찬성 33,반대 13, 기권 10표로 결정 하였다. 이로서 유대인 들은 건국 요건인 영토, 국민, 주권이 확보된 것이었다. 유엔결의가 있은 다음해인 1948년 5 월 14일 유대인들은 그들의 국가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 함으로서 1900년 동안 멸망하여 지도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던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표면상으로는 중동지역의 한 민족의 국가건설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건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이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위 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느낄 수 있다.

"무화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 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이러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른 줄 알라 (막13:28-29)"

- 김목훈(KIBI 운영위원)